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3일 (음력 7월 24일) 월요일

광주도철公, 이번엔 '보복 · 보은 인사' 논란

특정 본부장 사실상 강등 · 일부 팀장 보직박탈

기관장 경고 2회 누적 등에도 보란듯 인사단행

채용 비리와 성희롱, 분양사기 연루 등으로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이번에는 보복 · 보은 인사 의혹이 일고 있어 말썽이다.

근무성적과 직원평가에서 호평을 받아온 특정 본부장이 사실상 직위가 강등되고 일부 핵심 팀장들은 보직을 박탈당했다.

당사자들은 "사장 눈 밖에 난 간부들에 대한 막장 보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공사측은 "서열을 파괴한 성과중심 발탁 인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2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1일 단행한 인사에서 고객본부장 A씨를 종합관제실장으로 발령내고, 기획조정처장 B씨를 신임 고객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고객본부장과 기획조정처장은 직급은 '관리직 1급'으로 같지만 직위는 고객본부장이 상위, 기획조정처장이 하위 보직이다. 종합관제실장은 서열상 본부장급 아래로, 조직표상 고객본부장의 직속 부하다.

신임 고객본부장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기획조정처장에서 고객본부장으로 영전하면서 후임으로 기획조정처장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로 A씨는 B씨보다 낮은 직위로 강등돼 직속부하가 된 셈이다.

공사는 또 영업팀장과 문화홍보팀장은 보직을 박탈하는 대신 기존 총무팀장은 고객사업처장으로, 기존 3급 차장을 2급 팀장으로 발탁했다.

공사 측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업무 순환을 통해 매너리즘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과주의를 적극 반영했다"며 "무엇보다 조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채 출신 직원들을 팀장에 발탁하고 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사장은 "공헌도가 높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회사 안팎에서는 "보복,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사무직 본부장인 A씨를 기술직 종합관제실장으로 강임시킨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A씨의 경우 지난 수년간 공사내 1급 보직자 근무성적 평정과 직원 다면평가에서 1위를 해왔는데도, 하위보직으로 밀려나면서 보복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각에서는 올 3월 국무총리실과 시 감사위원회로 의문의 투서가 수 차례 접수돼 A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펼쳐졌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나자 이번에 강임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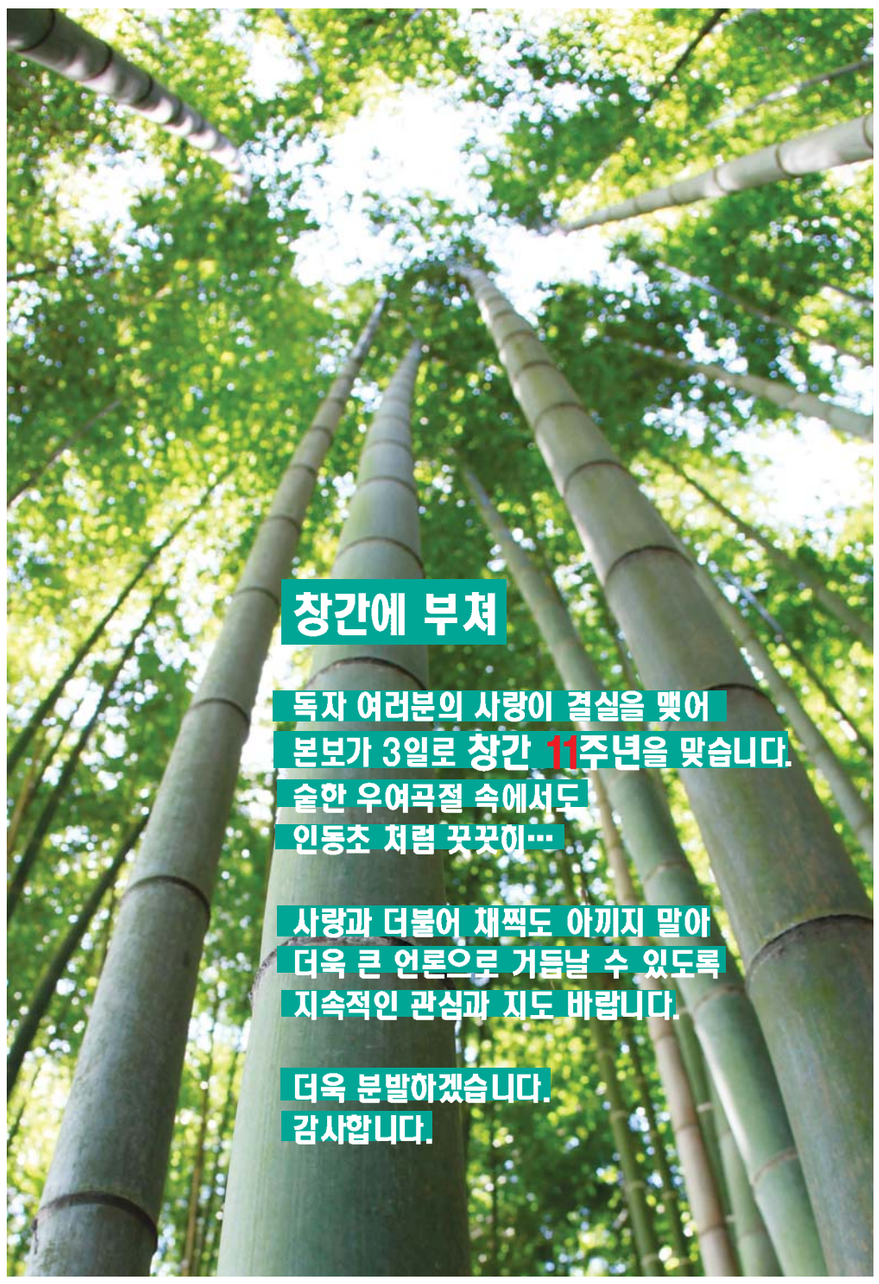
공사는 올 초에도 처장급인 1급 승진자가 있는 데도 같은 분야 2급 팀장을, 그것도 뒷말이 무성했던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관여했던 인물을 처장에 앉혀 '1급이 2급 밑에서 일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판박이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총무팀장과 인사 담당자가 각각 처장과 팀장으로 발탁되고, 사기 분양 의혹을 낳은 소위 '금남로 4가역 확약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나온 인사여서 "보복성 좌천 인사", "측근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와 보은 인사, 성희롱 축소 은폐 의혹, 민간업체 분양 사기 연루 의혹 등으로 올 들어 3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나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조직의 화합을 깨고 반목과 갈등만 키울 수 있는 인사가 단행돼 안타깝다"며 "음참미속의 심정으로 단호한 조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은 현재 도시철도공사 직원 간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공사 일부 직원들의 경우 노동청과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전남대학교, 오는 5일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공기업 · 대기업 15곳 참여…신흥정밀 등 지역 우수기업도 참가

전남대학교는 오는 5일 대학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2018 청년 내일(My Job)을 향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하반기 공채 시즌에 앞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취업 및 대기업 직무 컨설팅, 면접채용, 특별강연, 부대행사 등 4개 분야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취업 및 대기업 직무 컨설팅은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직무중심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SK, LG이노텍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면접채용은 현장면접을 통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부스를 마련했다.

신흥정밀 광주지점, 오이솔루션, 한국공기안전원, 한국알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지역 내 17개 우수기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부대행사로 창업컨설팅을 비롯한 VR체험관, 직무적성검사, 이미지메이킹, 사회적경제 장터 등을 진행한다.

최남규 기자

Photo 漫評

제2라운드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이 열렸다. 최 시인 측은 "폭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서 열린 첫 기일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은 그러한(성추행) 사실이 없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인의) 위법성이 조각(불성립)될 만한 입증 내용도 없다"며 "진실 입증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시인이 제보한 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최영미

고은

최영미